

인천주보

교구장 사목교서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주는 내 몸이다.” (루카 22,19)



무리요, <어린 성 요한 세례자>, 1665년경, 캔버스에 유채,
121x99cm, 프라도 미술관, 마드리드

제1독서 신명 8,2–3.14–16ㄱ

화답송 시편 147(146–147),12–13.14–15.19–20ㄱ ㄴ (◎ 12ㄱ)

- ◎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시온아, 네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은 네 성문의 빛장을 튼튼하게 하시고,
네 안에 사는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신다. ◎
- 주님은 네 강토에 평화를 주시고,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당신 말씀 세상에 보내시니,
그 말씀 빠르게도 달려가네. ◎
- 주님은 당신 말씀 야곱에게,
규칙과 계명 이스라엘에게 알리신다.
어느 민족에게 이같이 하셨던가?
그들은 계명을 알지 못하네. ◎

부속가 <성체 송가: 21절부터 시작하여 짧게 할 수도 있다.>

1. 찬양하라 시온이여, 목자시며 인도자신, 구세주를 찬양하라.
2. 정성다해 찬양하라, 찬양하고 찬양해도, 우리능력 부족하다.
3. 생명주는 천상양식, 모두함께 기념하며, 오늘특히 찬송하라.
4. 거룩하온 만찬때에, 열두제자 받아모신, 그빵임이 틀림없다.
5. 우렁차고 유쾌하게, 기쁜노래 함께불러, 용약하며 찬양하라.
6. 성대하다 이날축일, 성체성사 제정하심, 기념하는 날이로다.
7. 새임금님 베푼잔치, 새파스카 새법으로, 낡은예식 끝내도다.
8. 새것와서 옛것쫓고, 예표가고 진리오니, 어둠대신 빛이운다.
9. 그리스도 명하시니, 만찬때에 하신대로, 기념하며 거행한다.
10. 거룩하신 말씀따라, 빵과술을 축성하여, 구원위해 봉헌한다.
11. 모든교우 믿는교리, 빵이변해 성체되고, 술이변해 성혈된다.
12. 물질세계 넘어서니, 감각으로 알수없고, 믿음으로 확신한다.
13. 빵과술의 형상안에, 표징들로 드러나는, 놀랄신비 감춰있네.
14. 살은음식 피는음료, 두가지의 형상안에, 그리스도 온전하다.
15. 나눔없고 갈림없어, 온전하신 주예수님, 모든이가 모시도다.
16. 한사람도 천사람도, 같은주님 모시어도, 무궁무진 끝이없네.
17. 선인악인 모시지만, 운명만은 서로달라, 삶과죽음 갈라진다.
18. 악인죽고 선인사니, 함께먹은 사람운명, 다르고도 다르다.
19. 나눈성체 조각마다, 온전하게 주예수님, 계시음을 의심마라.
20. 겉모습은 쪼개져도, 가리키는 실체만은, 손상없이 그대로다.
21. 천사이 빵 길손음식, 자녀들의 참된음식, 개에게는 주지마라.
22. 이사악과 파스카양 선조들이 먹은만나, 이성사의 예표로다.
23. 참된음식 착한목자, 주예수님 저희에게, 크신자비 베푸소서.
24. 전지전능 하늘시민 되게하고, 주님밥상 저희먹여, 생명행복 보이소서.
24. 전지전능 주예수님, 이세상에 죽을인생, 저세상에 들이시어, 함께않는, 삶속자로 만드소서.

제2독서 1코린 10,16–17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복 음 요한 6,51–58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인천주보를 볼 수 있습니다.



성체 성혈 대축일



찬미예수님.

여러분 혹시 펠리컨이라는 새를 아십니까? 부리 밑쪽이 불어나 먹이를 저장해서 새끼를 먹이는 새로 유명합니다. 또한 이 새는 특별한 자녀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펠리컨은 새끼들에게 줄 먹이가 없으면 자신의 가슴살을 뜯어서 먹이고 병에 걸린 새끼에게는 자신의 핏줄을 터뜨려 그 피를 입에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은 펠리컨을 사랑과 희생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추운 겨울이 되어 새끼들에게 줄 양식을 구하지 못한 어미 새들은 새끼들이 독립을 할 때가 되면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분과 닮았습니다.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에서는 성체를 이렇게 칭송합니다.

“사랑 깊은 펠리칸, 주 예수님, 더러운 저, 당신 피로 씻어주소서.”

오늘은 이 사랑 깊은 예수님의 성체 성혈의 신비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체성사를 통하여 참사랑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요한 6,56-57)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께서는 미사 때마다 성체성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것이고 죽지 않을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우리는 당연히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 미사 때마다 모시는 성체의 가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이신 예수님의 몸을 우리는 양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구원하신 그 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오늘 제2독서에서 축복의 잔과 빵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동참하는 것이라 가르쳤습니다. 그 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심으로써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서 일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사람은 자신이 먹은 값을 해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을 맞이하며 음식과 그 음식을 먹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는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주신 예수님의 거룩한 몸과 피입니다. 성체와 성혈을 받아먹는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아무나 성체를 영하지는 않지요. 분명 하느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고서 세례를 받은 신앙인들만이 그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음식을 먹는 우리가 다른 이들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성체를 모시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 부리고 남을 속이고 부정한 일을 저지른다면 이는 분명히 잘못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밥값을 해야 합니다. 하느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인천주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성 요한 세례자

성 요한 세례자(Joannes Baptistae, 1세기경)는 루카복음에서 “율법과 예언자들의 시대는 요한까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등장하기 바로 전에 활동하던 마지막 예언자이다. 성인 즈카르야와 엘리사벳의 아들이며, 예수님보다 여섯 달 먼저 태어났고, 그들의 어머니들은 서로 사촌지간이었다. 성인의 존재는 신앙심이 충만한 늙은 제사장 즈카르야와 엘리사벳이 천사 가브리엘에게 믿을 수 없는 아들의 탄생 예고를 들으면서 드러났다. 성인의 부모인 즈카르야와 엘리사벳은 아이를 갖기엔 너무 많은 나이였다. 따라서 성인의 출생은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 성인은 젊은 시절에 신약에 나오는 메시아의 선구자로 유대 사막으로 들어가 청빈한 삶을 살면서 수많은 제자를 가르쳤다. 성인은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부터 요르단 강가에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내용으로 설교하기 시작하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많은 화가가 성 요한 세례자의 일화를 작품으로 남겼다. 가장 일반적으로 묘사된 성인의 도상(圖像)은 유년기의 요한, 광야의 요한,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요한 그리고 요한의 죽음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유년기의 요한은 성경의 내용과 상관없이 아기 예수의 가족과 함께 나타나거나 아기 예수와 정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장면이고, 광야의 요한은 짐승의 가죽옷을 입은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비둘기 형상을 한 성령의 출현과 함께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요한의 모습이나, 요한이 참수형을 당하는 현장이나 요한의 머리가 접시 위에 담겨 있는 것으로 묘사된 요한의 죽음 장면이다.

17세기 스페인 회화의 황금 시기를 대표하는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요(Bartolome Esteban Murillo, 1617–1682)는 일상생활의 장면이나 풍속을 강조한 작품과 그의 생애 절반을 프란치스코 수도회와 가까이하며 신실한 믿음을 드러내는 종교화를 많이 남겼다. 풍부하고 서정적인 종교적 색채가짙은 그의 작품 속에서 이상화된 아름다움과 감성적인 인간미를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어린 성 요한 세례자와 어린 양 한 마리가 화면에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다. 성 요한 세례자는 “낙타 텔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마르 1,6)라는 말씀처럼 넝마 같은 짐승의 텔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늘을 향한 성인의 모습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준비시킴으로써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임무를 수행하려는 다짐처럼 보인다. 눈에 띠는 붉은색 망토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수난을 상징한다.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 희생이나 완결처럼 긍정적인 대상으로 존중받는 색상이 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기억하며 마시는 빨간 포도주처럼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한다. 성인이 왼손에 친, 갈대로 만들어진 십자가는 그의 전형적인 상징물로 그 위에 감긴 종이 위에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Ecce Agnus Dei)라고 적혀 있다. 성인 곁에 어린양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희생으로 한 몸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사야서에서처럼 그리스도는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병고를 대신 지고 자신을 속죄 제물로 온전히 내어놓으신다. 어린양 오른쪽에는 성찬식의 포도주와 그리스도의 수난을 상징하는 포도 덩굴이 자라기 시작한다.

“너희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의 모든 부정과 모든 우상에게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 주겠다.”(에제 36,25–26) 인천전

축 일	6월 24일
수호성인	칼장수, 가죽 세공자
상 징	어린양, 갈대로 만든 십자가, 짐승의 텔로 만든 옷

술 · 고 · 로 · 기



예수님이 커피나 핸드폰보다 좋으십니까?



커피 좋아하십니까? 핸드폰 자주 보시나요? 요즈음 거리를 다니다 보면 누구나 한 손에는 커피를, 다른 손에는 핸드폰을 든 사람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폰까지 끼어주면 완벽하지요. 내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나’만을 바라보는 모습들이 지금 거리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나마 낫겠지요. SNS에 빠져 남의 일상이나 들여다보고 있는 것 보다는 말이죠.

사실 앞서 말한 모습들은 거리에서만이 아니라, 성당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커피를 들고 미사에 오는 모습, 미사 준비 시간에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지요. 물론, 그 모습을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당에 ‘왜’ 왔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기도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신학생 때 이 기도를 수십 번도 더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말입니다. 그리고 사제가 되어 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지금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교리를 통해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요. 그럼 묻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느끼십니까? 느끼지 못한다면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늘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곁에 계신 예수님을 찾지 않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물론 찾지 않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찾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예수님을 찾지 않으십니까? 아니, 예수님을 찾아본 적은 있으십니까? 진정 묻고 싶습니다. 커피와 핸드폰보다 진정 예수님의 소중하게 느껴지기는 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당에 왔는데, 왜 다른 곳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미사 때마다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체로써 우리 안에 직접 찾아오십니다. 또 우리가 성당에 갈 때마다 감실 안에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십니다. 두 손을 비우고, 손을 맞대십시오. 그것이 기도를 위한 손의 모양입니다. 그 손을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포근히 감싸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로마 8,39) 인천教區

서철원 다니엘 신부 | 청소년사목국 부국장 (청년부)

■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바오로 사도가 쓴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과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을, 정양모 바오로 신부가 단순하고 명쾌하게 에세이처럼 풀어 낸 성경 주해서다.

이 책에서 바오로가 코린토 신자들에게 쓴 이 편지의 수신인은 과거의 코린토인에 국한되지 않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보내는 편지로서도 이야기한다. 오늘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도 들을 수 있는 책이다.

[정양모 신부 지음 | 생활성서 | 2만원]

■ 부부수업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결혼 생활의 지혜)



부부가 서로에게 가까워지는 실질적인 조언을 담은 결혼 생활 안내서로, 가톨릭 신자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루어 가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지혜들이 담긴 책이다.

저자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깊이 공감되는 조언들을 제시하며, 이 책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통해 성가정으로 나아가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제니퍼 로백 모스, 베치캐리크스 지음 | 임정희 옮김 | 가톨릭출판사 | 1만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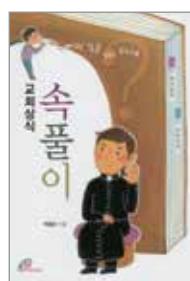
■ 간략한 지옥의 역사



다양한 시대에 걸쳐 지옥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살피며, 구전 문명, 고대 동양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탄생 이후로 세분화해 지옥에 대한 논의를 담은 책이다. 지옥을 철학적으로 해석하고자 했던 고대 이방인들, 저 세상에서 형벌의 장소로 여겨진 그리스도교까지 다양한 기록을 담은 이 책을 통해 지옥에 대한 변화를 만나볼 수 있다.

[조르주 미누아 지음 | 고준석 옮김 | 가톨릭출판사 | 1만2천원]

■ 교회상식 속풀이



신자들이 교리나 기도, 성사생활과 관련하여 흔히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대해 쉽게 답변하여, 신앙 생활 전반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기존에 근거 없이 믿고 있던 내용이 있으면 교회 전통이 말하는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해를 돋운다. 책에서 찾아보기도 쉽지 않은 궁금증들에 여러 교회 문헌들의 자침들을 모아 유익한 정보를 주고, 사목적인 안목으로 혜안을 제시한다.

[박종인 신부 지음 | 바오로팔 | 1만2천원]

■ 당신은 하느님이 보내신 반짝이는 선물

생일 축하해요



안셀름 그린 신부가 생일을 더욱 뜻 깊게 보내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저자는 생일 축하 인사의 의미, 생일의 숫자에 담긴 숨은 의미 등 생일에 관해 살펴본다. 태어난 순간부터 현

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날이 되도록 이끌어 준다. 생일을 맞이하기까지 살아온 삶이 축복의 나날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안셀름 그린 지음 | 신동환 옮김 | 가톨릭출판사 | 8천원]

■ 역사! 너는 괜찮아



청소년을 위해 3년 동안 그린 카툰을 모아 만든 에세이다. 청소년들에게 좀 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려는 작가의 지난한 노력이 빛을 발하는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가 담겨있다. 본문

의 차례 구성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환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문 중간 중간에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한 글들이 가득하다.

[김준희 글 그림 | 하양인 | 1만2천원]

■ 호수에 새겨진 새들의 발자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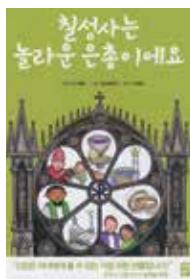


이봉하 시인은 성바오로 수도회의 수사 이면서 수도자 시인이다. 잘못된 사회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자연의 조화와 변화에 대한 경이감, 지난날에 대한 그리움과 회한, 생명을 가진 것들에 대한 외경심, 세상사와 세상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런데 되풀이해 읽어보면 역시 인간의 역사와 신의 역사가 결코 무관할 수 없다는 시인의 신앙심이 전해주는 울림을 느낄 수 있다.

[이봉하 글 | 성바오로 | 1만원]

■ 가톨릭 어린이 추천 도서

-칠성사는 놀라운 은총이에요-



칠성사에 대해 쉬운 설명과 그림들로 다양한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성사가 가진 의미를 깨닫고, 성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칠성사와 하느님의 은총에 대해 감사할 줄 알

며, 나아가 자신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신앙인으로의 바람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칠성사에 대해 더욱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이다.

[코니 클락 글 | 짐 버로우즈 그림 | 옮긴이 김경은 | 생활성서 | 7천원]

■ DVD 궁금해요, 프란치스코 수사님!



애니메이션으로 쉽게 교리를 배울 수 있는 교육 DVD 두 번째 시리즈가 출시됐다. '성탄' '성인들' '예수님을 따라서' 세 편으로 구성됐다. 주인공 프란치스코 수사가 전하는 이야기와 노래로 유치부와 초등부 주일학교 학생, 첫 영성체 교리반 어린이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교리를 전한다. 살면서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전해 줌으로써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이끈다.

[바오로팔 | 영어, 한글 자막 녹음 | 각 1만2천원 | 7월 한달 간 출시기념 20% 할인]

파티마의 성모발현 100주년 기념 6대륙 순례기도회



파티마 성모발현 100주년 기념 6대륙 순례기도회의 인천 교구 일정이 7일(수) 오후 1시부터 답동 주교좌성당에서 열렸다. 이번 순례기도회는 파티마의 성모발현 100주년을 맞아 프란치스코 교황이 축성한 파티마의 성모상이 6개 대륙을 순례하며 특별히 세계평화와 성모님의 은총을 간구하기 위해 열렸다.

지난 달 17일(수)에 시작된 국내 일정은 서울, 대전, 수원 등을 순례한 후 우리 교구를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파티마의 세계사도직(지도=배희준 신부)의 주관으로 열린 기도회는 셀기도와 AHFI(국제성가정연합회)가 전한 순례 기도회의 취지와 파티마 성모님의 당부말씀에 이어 교구장 정신철 주교와 교구 사제단의 집전으로 미사가 봉헌되었다.

정 주교는 미사를 시작하며 교구에서 조성하는 성모성지에서 파티마 성모님을 모시고 교구민들과 함께 기도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강론에서 파티마의 어린 목동들을 비롯해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사람들을 떠올리며 가난하고 소박하며 순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청하자고 당부했다. 미사에 이어 교구민들은 묵주기도를 바치며 성모상을 경배했고, 교구는 축성된 스카풀라를 선물하며 기도회를 마무리했다.



사제 인사발령(6월 12일, 7월 3일자)

성 명	계시던 곳	가시는 곳
김범일	고 잔	휴 양(6월 12일자)
유성모	유 학	고잔 주임서리(7월 3일자)

사제 성화의날 및 금경축(사제서품 50주년) 축하미사 안내

일시: 2017년 6월 23일(금) 오전 11시

장소: 답동 주교좌성당

미사에 앞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성체조배가 있습니다.

예수성심대축일을 맞이하여 모든 사제들의 성화와 특별히 금경축을 맞으신 박성규 베네딕도 신부님과 김상용 힐라리오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2회 교구 성체 현양 및 성체 거동 거행



제2회 서구, 계양지구 성체 현양 및 성체 거동이 지난 6일(화) 오전 9시 30분에 김포성당과 성체성지에서 열렸다. 9백여명의 교구민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김포성당에서 성체조배와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경축미사와 성체거동 및 성체 강복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경축미사를 집전한 정신철 주교는 강론에서 자신과 생각과 다르면 틀리다고 여기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현 우리 사회를 언급하며 “성체를 우리 안에 모시듯,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이기에 성체성사는 받아들임이다.”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나의 희생과 양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이끌어낼 수 있기에 성체성사는 풍요로움을 위한 희생이라고 강조하며 성체성사 안의 힘과 용기를 얻기 위해 성체조배를 강력히 권고했다.

미사 후에는 성체성지로 성체를 거동하는 행렬을 시작하여, 성지에서 성체 강복을 하며 성체성사의 해를 살아가는 우리를 다시 되돌아보았다. 성체 강복 후에는 성체현시 및 조배가 저녁 10시까지 이루어졌다.

블로동 성당 관할지역 중 일부 재확정안내

2004년 11월 24일자로 신설된 블로동 성당의 관할지역 중 일부가 도시개발로 인하여 주소가 변경되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섬에 따라 혼란을 막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재확정합니다.

* 구 지번: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산49-66번지 일대

(구두물 마을, 옹주물 마을)

* 새 지번: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2128-1번지(한강센트럴자이 1단지 아파트)와 867번지(한강센트럴자이 2단지 아파트)

인천교구 성모 순례지(성모당) 조성 및 봉헌 모금 방법

인천교구 성모 순례지(성모당) 조성 기금 마련을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기도와 봉헌을 부탁드립니다.

- 일반후원 25만원 / 우수후원 100만원 / 특별후원 1,000만원

- 현(現) 모금현황: 780,478,855원 (6월 12일자)

(사제특별기금 233,712,000 포함)

· 계좌: 신협 131-018-148137 <예금주: 천주교 인천교구(성모당)>

* 성모당 완공 시, 봉헌판에 이름과 세례명을 올릴 예정이오니, 입금시 이름과 세례명을 기재해 주시고 연락 부탁드립니다.

· 문의: 관리국 765-6975 / 6982, 사무처 765-6961 / 6943

교육 | 피정

미사 | 행사

❖ 7월 구역반장 월례교육

6/27(화) 10시 담동, 만수1, 주안1, 연수, 논현 /
20시 연수
7/4(화) 10시 부평4, 계산, 소사본3, 검암, 중3,
여월, 신천 / 20시 신천, 부평2,
7/5(수) 20시 영릉, 계산, 소사본3, 검암
7/6(목) 10시 김포
7/11(화) 10시 마니산, 신공항

❖ 교구 지혜의샘(북방선교기도공동체)교육

월: 전문 봉사자반(홈페이지 참조)
화·구약① 연대기 5045동독학교 / 구약 맥잡고 둘러보기
수·신약 연대기 5045동독학교 / 신약 맥잡고 둘러보기
목·구약② 연대기 5045동독학교 / 구약 맥잡고 둘러보기
금·철아미사, 성시간, 말씀치유, 21~04:30)
화~목 16시 파견미사 www.jwsdom.or.kr
곳: 부천시 송내동 366-5 지혜의샘 ☎ 032-343-1871

❖ 교구성령금요철야(22:30~04:00)

❖ 교구성령쇄신찬미율동세미나(회비: 1만5천원)
때: 6/19(월)~7/10(월) 매주(월) 19~22시, 4주간
❖ 금요철야: 6/23 김종전 세례요한, 6/30 순무진 사도요한 신부
❖ 성모님과 함께하는 성체조배: 매주(월) 10시~16:30
❖ 성경강의 및 치유기도회: 매주(화) 13시~16:30
사도행전: 손광배 도미니코 성령전당신부(미사: 16시)
☎ 032-761-6301, 010-7540-0956 / 담동문화관3층(성령홀)

❖ 인천ME 제392차 주말

때·곳: 6/23(금)~25(주일), 강화 50주년 기념 영성 센터
❖ 주교회의 여성소위원회 정기 세미나 개최
때: 6/30(금) 13~18시
곳: 서울대교구청 신관 5층 502호 교육실
주제: 여성 존재에 부여된 성소의 의미와 역할
(참여형 토론회, 오픈 스페이스)
대상: 전화 신청 접수(선택순 100명, 회비 없음)
☎ 02-460-7641

❖ 가정회복을 위한 기도와 미사(면담기도, 말씀)

때: 6/19(월) 13시~16:30(찬양, 치유)
곳: 정동프란치스코회관(1, 2호선 시청역)
☎ 010-7282-2422, 010-5245-0121

❖ 기적의 메달과 함께 하는 기도모임

때: 6/24(토) 15~19시
곳: 성빈첸시오 사랑의 딸회 산본수녀원
대상: 관심있는 19~40세미만 여성
☎ 010-5938-0922

❖ 가정성화를 위한 꽃동네 성령페정

때: 7/22(토) 11시~23(주일) 16시
곳: 음성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대상: 가정성화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분, 가정불화로 고통받는 부부, 부모자식, 고부간, 내적·외적 영적지유를 원하시는 분
회비: 5만원(어린이 동반금지) ☎ 010-5490-5345

❖ 찾아가는 피정팀 예수수도회 '청신호'
대상: 초중고, 청성단체가족, 청년, 교사, 자모등
방법: 불러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피정
☎ 010-5495-5190 예수수도회 안선영 수녀

❖ 꽃동네성소자하계수련대회

때: 7/28(금) 17시~30(주일)
곳: 음성꽃동네 사랑의연수원 / 참가비: 3만원
대상: 고등학생~심신건강한 35세 미만 미혼 남녀
☎ 043-879-0283

❖ ALMA ART(가톨릭문화원) 무료공연

때·곳: 매주일 15시, ALMA ART(가톨릭문화원)~김포시 소재
첫째주일~김수연의 Classic For You
둘째주일~콘서트 <천양, 거룩한 기쁨>
셋째주일~챔버오케스트라 연주회
넷째주일~바리톤 송기정의 Sing Sing Concert
☎ 1577-3217 www.koccc.kr

❖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부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와화센터)

대상: 호스피스에 관심 있는 모든 분 (선택순 100명)
※ 취업과 무관하며 봉사를 위한 교육입니다.

때: 8/9(수)~11(금) 9~17시

곳: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성요셉관 5층 대강당
교육비: 5만원 (우리 1002-554-540926 / 이현숙),
중식 및 교재비 포함 ☎ 032-340-2435

❖ 수도회 봉안(납골)당 하늘정원 분양

연령을 위한 수도자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봉안당
곳: 경기도 연천군(면산C에서 30분거리)
운영주체: 천주교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 031-834-1262~3

❖ 솔샘나우리센터(심리, 정서치료)

제) 천주교 쌈뜰수도원 유지재단
모래놀이, 놀이, 미술,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대상: 아동, 청소년, 성인, 어르신
☎ 032-872-2731 www.solsam.or.kr

❖ 여름성음악연수(가톨릭세실리아성음악협회)

주제: 미사전례와 성가
내용: 그레고리오성가, 오르간, 지휘, 성악, 음악기초
이론 및 성음악작곡, CCM(생활성가)~전공과목택일
교수진: 최호영 신부와 15명 / 접수마감: 7/3(월)까지 (선택순 150명)
때·곳: 7/12(수)~15(토), 가톨릭대 성심교정
연수비: 40만원(교재, 악보, 숙식비 포함)
입금계좌: [우리] 1002-044-623614 박재광
☎ 010-4513-7605, 010-6395-1181 www.cecilkorea.org

❖ 이호중교수의 성가발성교실 · 그레고리오성가

cpbc 평화방송 「다함께 성가들」 진행자 이호중 교수의 시
스피나교회음악원이 인천지역 교우분들을 찾아왔습니다.
때: 6/21~8/30 매주 (수) 20시, 총 10회
곳: 인천 간석4동 성당

과목: 그레고리오성가 기초입문강좌-(수) 19시 / 월 12만원
성가발성교실 「다함께성가들」-(수) 20시 / 월 10만원
☎ 02-363-2258, 010-9739-3358, 010-5245-2848

❖ 젊은이선교체험(필리핀)

때: 7/24(월)~8/3(목), 10박 11일
대상: 만 18세~대학생, 청년 남녀
경비: 150만원(유류할증료 및 세금포함)
☎ 02-924-3048 성길룸반 외방선교교회

❖ 예비자 통신교리 안내 (우편, 사이버)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요금: 9천원
☎ 02-2274-1843~4 / 홈페이지: cdcc.co.kr
주소: 서울중앙우체국사서함 5234호 / 우 04535

❖ 포도나무가지 성물방 안내

운영시간: (월~주일) 10~18시
곳: 송림동 102-74(교구청 정문 인근)
취급물품: 주일학교 단체티, 세례명 소이향초,
영광송 에코보틀 등 / 인터넷 주문배송 가능
☎ 010-2931-4300

성소모임

수도회명	때·곳	문의
살례시오회	6/24(토)~25(주일) 돈보스코 청소년센터	010-3894-1332
예수고난관상수녀회	수시로 문의가능 청주 예수고난관상수도회	043-295-5940